

2022. 8. 3.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7월말 기준)

정예지 | 연구원(3705-6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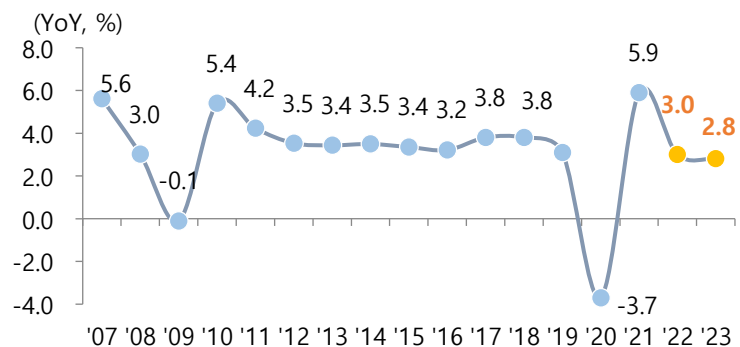
박미정 | 부전문위원(3705-6210)

- **세계(0.1%p ↓): 내년 말까지 유로존, 영국, 미국 및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이 시차를 두고 완만한 경기침체를 나타낼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중국의 회복 재개 예상은 하방위험을 다소 완화(Citi, JPM)**
 - **미국(0.5%p ↓):** 상반기 2분기 연속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2분기 비농업고용(월평균 +37.5만), 소비자출(+1%, qoq saar) 등을 감안할 때 NBER 기준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미비(BofA)
 - 컨센서스는 하반기 성장 회복을 예상하나 일각에서는 소비 부진 등으로 완만한 경기침체 전망(BofA, Nomura)
 - **유로존(-):** 상반기 양호한 성장 불구 7월 PMI, 가격기업 신뢰지수, 경기체감지수 악화 등은 경기 둔화 추세 시사. 리튬 가스 공급 불안으로 가스 배급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하반기 역성장 전환 가능성 확대(Barclays)
 -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고물가(7월 8.9%, yoy)가 지속됨에 따라 ECB는 긴축 기조를 이어갈 전망(Nomura)
 - **중국(-0.2%p ↓):** 예상을 하회하는 2분기 성장률(0.4%, yoy)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출 개선 및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봉쇄정책 완화에 따른 하반기 회복(+3.5~4%, yoy) 기대 제기(Barclays, JPM)
 - 모기지 상환 거부 사태 및 코로나19 재확산이 리스크로 잔존하는 가운데 정부는 금년 성장목표(5.5%) 달성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 표명
 - **일본(-0.2%p ↓):** 중국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일부 제조업 선행지수가 개선되었으나 물가 상승(2년 전망치 +1.9%)에 따른 구매력 저하, 수출 악화 등으로 경기 둔화 전망이 지속.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이어갈 소지(Citi)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Barclays	2.9	2.7
BNP Paribas	3.4	3.5
BoA-ML	3.0	2.7
Citi	2.9	2.5
Goldman Sachs	3.0	2.8
JP Morgan	3.1	2.5
Nomura	2.7	1.8
Societe Generale	3.2	3.4
UBS	2.9	3.0
평균	3.0(-0.1)	2.8(-0.3)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 (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KCIF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1.0	1.0	0.5	0.5	1.6	0.6
BNP Paribas	-	-	-	-	2.1	1.8
BoA-ML	-0.5	-2.0	-0.5	1.0	1.2	-0.1
Citi	2.3	2.2	1.3	0.4	2.1	0.9
Goldman Sachs	1	1.0	1.3	1.5	1.6	1.1
JP Morgan	1.0	1.5	1.8	1.3	1.6	1.2
Nomura	0.4	-1.4	-1.6	-1.6	1.3	-1.2
Societe Generale	2.1	1.2	1.5	2.1	2.6	1.9
UBS	2.3	2.0	1.3	1.2	1.8	1.4
평균	1.2(-0.6)	0.7(-0.5)	0.7(-0.3)	0.8	1.8(-0.5)	0.8(-0.5)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1.1	-0.9	-0.5	1.4	3.1	0.6
BNP Paribas	-	-	-	-	2.5	2.3
BoA-ML	0.4	0.5	0.9	1.3	2.7	0.9
Citi	0.7	-0.9	-1.1	2.8	2.2	-0.1
Goldman Sachs	-0.3	-0.6	1.0	1.6	2.9	0.9
JP Morgan	0.5	-0.5	-0.5	1.8	3.0	0.7
Nomura	-1.2	-2.4	-2.0	-1.2	2.2	-1.2
Societe Generale	1.9	1.6	2.0	2.5	3.0	2.0
UBS	0.4	0.4	1.2	2.1	2.7	1.2
평균	0.4(-0.4)	-0.4(-0.9)	0.1(-1)	1.5	2.7(0)	0.8(-0.5)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Citi는 연간전망은 7.29일, 분기별 전망은 7.22일 기준으로 집계 시점에 차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3.6	3.9	4.4	8.1	3.1	5.3
BNP Paribas	-	-	-	-	3.7	5.7
BoA-ML	(16.1)	(8.5)	-	-	3.5	6.0
Citi	4.8	5.5	5.2	9.8	3.9	6.1
Goldman Sachs	4.3	3.8	3.5	8	3.3	5.5
JP Morgan	(10.5)	(5.7)	(5.5)	(5.0)	3.2	5.1
Nomura	4.0	4.0	3.6	8.4	3.3	5.5
Societe Generale	3.5	5.5	5.0	7.5	4.0	5.7
UBS	3.1	3.6	3.2	7.6	3.0	5.4
평균	3.9(-0.1)	4.4(0)	4.2(-0.1)	8.2	3.4(-0.2)	5.6(0.2)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4.7	2.0	1.1	1.0	2.0	1.9
BNP Paribas	-	-	-	-	1.4	1.1
BoA-ML	5.9	-0.2	-	-	1.6	-0.4
Citi	1.4	1.1	1.2	1.0	0.8	1.2
Goldman Sachs	2.6	2.0	1.4	1.3	1.4	1.7
JP Morgan	1.0	3.0	1.0	1.0	1.1	1.4
Nomura	3.4	-0.3	-0.6	0.4	1.8	0.8
Societe Generale	3.7	2.2	1.5	1.1	1.5	1.9
UBS	4.0	2.5	0.6	1.0	1.2	1.5
평균	3.3(-0.6)	1.5(-0.4)	0.9(-0.1)	1.0	1.4(-0.2)	1.2(-0.3)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6 혹은 yjju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